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앞장

익산시, 긴급 기자회견·위기 대응반 구성

22일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조치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익산의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GM 군산공장은 최대 연간 28만대의 차량을 생산해 왔으나 하연지만 글로벌 GM 세베레가 유럽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2014년부터 생산 및 수출량이 해마다 10만대 이하로 감소하였다.

결국 계속되는 실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되었고 정부는 현재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135개의 협력업체(1차 35개, 2차 107개) 중 익산 소재 협력업체는 23개 업체(1차 4개, 2차 19개)로 군산을 제

외하고는 가장 많고 관련 종사자 수는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중 실제 익산에서 1,2차 협력업체를 조사한 결과 6개 협력업체 1,300여명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산만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군산을 제외한 타 지역 협력업체는 자금 용자를 비롯한 어떠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가장 많은 익산 경제에는 더욱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특히 익산시 1차 협력업체 (주)비글로벌은 한국GM 군산공장에 상당한 납품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타격에 상응하며, 2차 협력업체 G.H.테크 (주)명엔브이이치, 원앤원테크 등도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22일 익산시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조치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익산의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 돼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근로자들이 고용안정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 줄이어

익산시는 지난 21일 22일 양일에 걸쳐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코스모메디콘(주) 김영찬 대표 (주)케이씨생명과학 신규식 대표, (주)농림캐미컬 김형수 이사, (주)아토즈메디텍 정광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익산 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 및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1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코스모메디콘(주)는 미(美)의 추구하고 생환수준 향상에 따라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능성 및 남성화장품 수요증가로 발수성과 통기성, 피지 흡유력이 우수한 화장품용 실리콘 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중인 화장품 원재료인 실리콘 젤의 본격 자체 생산을 위해 제4공단 4,900㎡ 부지에 28억여원을 투자해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2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케이씨생명과학과 (주)농림캐미컬은 2006년 설립된 이후 자체 이화하부실연구소를 운영하며 소나무 재선충 전문양재를 포함한

유제, 액제, 미탁제류 등 작물보호제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선도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제3공단 1만2,332㎡ 부지에 총 36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주)아토즈메디텍은 병원, 보건소 등에서 기존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채혈기 기인 진공채혈관을 비롯한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부품 생산 자동화설비 구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제4공단 3,332㎡ 부지에 35억여원을 투자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국내의 의료시장에서 우수한 제품과 생산기술을 토대로 자동화 라인을 구축해 원·부자재 수급 및 원가 절감 노후유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들 4개 업체가 총100억여원을 투자할 경우 7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올해 안 준공과 동시에 본격 가동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전국체전 시민 홍보대사 58명 위촉

2018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난 22일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전국체전의 날(매월 12일) 선포식을 갖고 시민홍보대사 58명을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체전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매월 12일을 체전의 날로 정하고 시민 홍보대사 58명을 선정해 위촉장 수여와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은 시민홍보대사는 총 58명으로 29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이동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12일 전국체전의 날에 전국체전 홍보활동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손잡고 이 도시환경정비 등을 펼치고 전국체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화합체전 분위기 조성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체전의 날은 전국체전 개최식인 10월 12일에 맞춰 매월 12일로 지정되었으며, 민관이 함께 전국체전 개최식이 열리는 10월 12일까지 집중적인 전국체전 홍보활동과 주요 도심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전국(장애인) 체전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시동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2일 부시장실에서 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및 중앙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및 중앙공모사업 발굴은 총 3차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총사업비 1,529억원 규모 33건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미륵사지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 보훈회관 건립,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 등으로 향후 단계별 논리를 개발해 2019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시는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경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관심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 추가적

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 완료 후에는 신규 및 계속사업 전체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안을 결정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지역 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땀 흘려 다년간의 노후유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근대 역사지역 여행 자유롭게

'떡방이와 친구들' 순환버스 시범운영

군산문화협동조합 G로컬이기는 군산대학교인문산학협력센터, 전북코레일 및 군산제일관광과 손잡고 23일부터 한 달 동안 군산 근대 역사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떡방이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근대 투어 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군산문화협동조합 G로컬이 군산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캐릭터를 보면 노선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전북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실시한 00혁신리빙랩 공모전에 선정돼 운영하게 됐다.

'떡방이와 친구들' 근대 투어 순환버스는 군산 캐릭터 '떡방이와 친구들'을 랩핑한 45인승 버스가 군산역을 기준으로 철길마을, 터미널, 근대역사박물관, 근대역사지구, 동국사, 유명 맛 집 등을 순환하며 4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떡방이와 친구들' 뺏지로 제작된 패스를 구입하면 금토일 내내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다.

또한 순환버스운영기간 동안 '떡방이와 친구들' 초콜릿 체험과 '문과토리매직미술' 특별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상품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사업을 위하여 군산대 미디어문화학과 오원환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군산100혁신리빙랩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군산100혁신리빙랩시민추진위원회'는 근대 투어 순환버스가 승하차 할 정류장과 인근 맛 집, 볼거리 등등을 선정하여 버스 탑승객들이 알차게 근대투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전북 코레일과 손잡고 연계상품을 만들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군산역에서 군산근대역사지구까지 개별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군산방문객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 근대 투어 순환버스 '떡방이와 친구들'

동행'꿈'을 갖는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어린이 행복특권 강화

꿈향'꿈'을 갖는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익산시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